

광주·전남 첫 스웨덴 명예영사 동신대 양철호 교수

“스웨덴 선진 복지정책 배우고 동양의학 전파 한방대 세울 것”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스웨덴 명예영사관은 광주·전남 첫 명예영사관입니다. 이를 계기로 호남이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고 복지선진국 스웨덴의 정책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광주·전남 첫 명예영사로 임명된 양철호(58)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8일 라르스 니엘센 주한 스웨덴 대사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는다. 양 교수는 이날 스웨덴 국왕 칼 16세 구스타프의 승인을 받은 임명장을 받고 오전 11시30분부터 동신대 보건복지1관에 명예영사관 개관식을 연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스웨덴 복지국가를 이끄는 몇 가지 원칙’이라는 주제로 동신대 국제회의장에서 라르스 니엘센 주한 스웨덴 대사 특강을 진행한다.

명예영사관은 2013년 11월 현재 주한 몽골영사관 등 전국 128곳에 설치되어 있다. 비자발급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이들 명예영사관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부산 이탈리아 명예영사관, 주대구 폴란드 명예영사관 등이 영남지역에 있다. 스웨덴 명예영사관의 경우 부산과 대구, 대전에 이어 네 번째로 호남지역에 문을 열게 됐다.

지난 2월부터 최종 통보를 받은 7월까지 명예영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계획을



묻는 인터뷰를 진행한 양 교수는 지난 5개월간 자신을 돌아보고 광주·전남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전국에 명예영사관이 100곳이 넘게 있는데 그동안 호남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스웨덴을 포함한 드넓은 세계무대가 펼쳐져 있는데 일부 국가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명예영사로서 스웨덴을 알리는 것을 넘어 두 나라 사이 교역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 교수는 광주에서 태어나 지난 1993년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5년부터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1995년 9월 광주·전남노인의 전화를 설립해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공로로 인정받아 지난 5월에는 광주시민대상 사회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전남 첫 명예영사로서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며 이제 스웨덴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양 교수는 스웨덴에 동양의학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국에 곳에 있는 동신대학교 한방대학은 저희 학교를 넘어 동양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스웨덴 명예영사임명을 계기로 한방대학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열린 F1그랑프리 대회 때 칼 필립 스웨덴 왕자가 방문했을 때도 직접 만나 의견을 전달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구체화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이돈명 전 조선대 총장 정신 계승

“미술사 사회적 실천 이어 가겠다”

조선대 민주화운동연구원, 강좌 개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흥준 교수 퇴임



조선대학교 고(故) 이돈명 전 총장의 정신을 계승하는 강좌가 열린다.

조선대학교 민주화운동연구원은 27일 이돈명 전 총장의 민족·민립·민주적 원칙과 이상을 계승하고 청년학생의 창의와 도전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감망하는 시민사회의 열원에 발맞춰 ‘凡天下이돈명 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모두 네 차례 열리는 강좌에서는 이부영·동양·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이철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상임대표,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염수근 조선대 교수가 각각 강연한다.

첫 번째 강의는 12월 2일 이후영·동양·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이철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상임대표,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염수근 조선대 교수가 각각 강연한다.

조선대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학원민주화운동 역사상 최장기 농성시위를 통해 1988년 이돈명 인권변호사를 총장으로 영입하면서 민족·민립·민주대학으로 재출범했다. 이돈명 총장이 이끌던 조선대는 전국 최초 재정 공개, 개방형 교수공개, 교양과정 개편 등을 통해 대학의 제반 제도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운영에 있어서도 사학의 모범을 세우는 혁신을 기했다.

/채희종기자 chae@



“미술사학의 길로 들어서면서 ‘미술사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년을 맞네요. 게으르게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완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로 대중의 문화적 눈높이를 크게 높인 유흥준(64) 명지대 교수가 정년 퇴임을 맞았다.

유 교수는 퇴임에 맞춰 신간 ‘명작순례-옛 그림과 글씨를 보는 눈’과 ‘유흥준의 한국미술 강의’를 냈다.

지난 1967년 서울대 미학과에 입학한 유 교수는 대학 때 16세기 이탈리아 미술사가이자 화가인 조르조 바사리가 쓴 ‘이탈리아 미술가 전집’을 읽고 미술사학에 눈을 떴고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유 교수는 뇌溢 후에도 석좌교수로 명지대에서 계속 연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는 후학들에게 “미술사를 공부하려면 스님이 되기 위해 머리를 깎으려 절집을 찾았다는 정도로 생각하라”고 당부하면서 “요즘 출판 세태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지식을 넣지도 않은 채 머리를 세척하려는 책만 나오는 형국”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유 교수는 28일 오후 3시 명지대 대체교양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정년퇴임 기념 강연회를 연다. 주제는 ‘미술사의 사회적 실천을 위하여’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임덕삼·김송심씨 장남 정수(MOS 호남)군 정영자씨 차녀 김환옥(광주일보 독자서비스국) 양=30일(토) 오전 11시 아이리스웨딩홀 1층 베스홀.

▲이상면(전 전남도 정무부지사·광주대 교수)·한현숙씨 장남 은창군 정승기(서울 정치경협외·원장)·국혜연씨 장녀 소예애=30일(토) 오후 5시 서울 논현동 2동 성당.

▲심노은·김순단씨 장남 관택군 유정희(곡성경찰서 복사동 치안센터)·조정덕씨 장녀 세영=12월 1일(일) 낮 12시 수아비스웨딩컨벤션 1층 수아비스홀.

동창동문회

▲송원고 총동문회(총동문회장 황명성) 송년의 밤=12월 3일(화) 오후 7시 상무지구 라마다호텔 4층 연회장 062-384-7447.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총동문회(동문회장 차용훈) 송년회 =12월 4일(수) 오후 6시 프라호텔 010-3643-7049.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조재육) 월례회=12월 5일(목)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종친회

▲경주김씨 광주·전남 종친회 확대 이사회모임=12월 5일(목) 오후 11시 인애동산 강당 062-672-9311, 010-6455-6296.

▲암해정씨 광주전남 종친회·정광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12월 6일(금) 오후 6시 이화웨딩캐슬 1층 010-7170-4056.

향우회

▲재광곡성삼기향우회(회장 김재정)=12월 1일(일) 오후 6시 예술영예홀 062-366-1366, 367-1577, 368-1577.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방법 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 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여가·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가능할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들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236-2362.

▲광주송원초등학교 2014학년도 신입생=지원자격은 2007년 1월 1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기출 및 위기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모집

▲농성문화의 집 오전요가 수강생=균형있는 몸매와 정신을 맑게 해주는 요가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매주 화·금,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062-362-2072.

▲‘시니어비즈플리자 지원사업’ 제2차 ‘심리상담자 양성 과정’ 교육생= 관심이 있는 미취업자, 주부 등 40세 이상(직장인 제외·선착순 25명), 접수마감은 29일(금) 오후 6시까지, 교육기간은 12월 2일~18일(주 3회·월 수금·오후 2시~6시) 시니어비즈플리자 교육장(동구 금남로 238번지 무등빌딩 13층) 062-236-2362.

▲아시아실버원드 오페스트라 회원=관악기(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등) 중 액1개인지도 및 그룹·합주지도,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주민등록상 북구 거주자) 중 전국구가 평균소득 120%(4인 가족기준소득 568만 3000원) 이하 062-226-2030,

범죄 피해자 아픔과 치유 함께 합니다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소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가 전국에서 4번째로 광주에서 문을 열었다.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7일 “광주시 등구 구성로에서 ‘광주 스마일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이 악동을 딛고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위탁해 설립한 치유시설이다.

스마일센터는 피해자에게 단기 일시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심리상담과 진단 평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스마일센터는 피해자에게 단기 일시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심리상담과 진단 평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27일 오전 개소식이 끝난 뒤 허정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스마일센터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복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스마일센터는 지난 2010년 7월 서울을 시작으로, 2012년 9월 부산, 지난 22일 인천에 각각 들어섰다. 법무부는 오는 2017년까

지 전국에 스마일센터 12개소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장남구 광주서부경찰 계장

교통안전 안행부 장관상



광주서부경찰 장남구 교통관리계장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국회 교통안전포럼 선교장’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그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제로 그동안 100여회에 걸쳐 학생 1500여명에게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및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벌여 관내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인 점을 인정받았다.

실제 서부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스쿨존 내 부상자는 ▲2011년 24명 ▲2012년 8명 ▲올해 1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자는 지난해 5명

에서 올해 1명으로 80% 감소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치원 등 5개 팀은 재능기부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심형희 동부교육장은 “학부모들의 꿈과 끼를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학부모 동아리가 교육기부문화 정착에 주춧돌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제로타리 초아의 봉사단, 장성서 봉사활동



국제로타리 3710지구(총재 김보곤·DK 산업 회장) 초아의 봉사단(단장 박요주)이 장성·장성중앙로타리클럽과 함께 북이초등학교 노령관에서 장성군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음악단과 청각장애인 학생 2명 062-360-5591.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1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중국 유학생들이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연다.

중국 유학생들은 한글 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1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는 340여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